

# 북한개발소식

# 10

2020 October

통권 180호

| 이달의 주제 |

코로나19와 탈북민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 코로나19와 탈북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October

## CONTENTS

이달의 주제 :

**코로나19와 탈북민**

	<p><b>01</b> 권두칼럼 코로나19와 탈북민, 리고 우리의 기도</p>		<p><b>07</b> 칼럼 1· 강디모데 코로나19 이후, 탈북민 사역의 방향성</p>
<p><b>17</b> 칼럼 2· 오은경 코로나1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방역</p>		<p><b>22</b> 칼럼 3· 최경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p>	
<p><b>29</b>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9)</p>	<p><b>34</b> 북한 뉴스</p>	<p><b>38서평</b>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p>	<p><b>40</b> 북한 기도 제목</p>

###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대면 활동 최소화와 상당 수준의 경제 봉쇄 등으로 인해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이 중단된 상태이다. 교회 활동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환경은 모든 이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특별히 탈북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해외 탈북자의 경우 봉쇄 조치와 이동 통제로 인한 한국으로의 망명길 차단이 신변 안전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의 경우 사회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경제 봉쇄 조치와 대면 활동 제한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연고 없는 곳에서 새롭게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 이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 글에서는 국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기

도제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코로나 19와 탈북민의 어려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방역이나 경제나 하는 놓칠 수 없는 두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가운데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즉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동 제한 및 봉쇄를 강하게, 장기적으로 시행할 경우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반면 경제 악화를 우려해서 방역 활동을 완화할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해 더 큰 인명 피해, 더 나아가 경제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수준의 방역이 적절한지에 대해 각 국가와 지역별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 어려움은 결국 불가피하게 경제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손님이 들어와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일종의 경제





〈지난 9월 9일 새벽 일거리를 얻기 위해 몰려든 일용직 구직자들로 서울 구로구 인력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 서울경제)〉

불황은 다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서민층과 약자에게 더욱 매섭고 힘들게 다가온다.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나 서비스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이 직장이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 누계 대비 임시직 -7%, 일용직 -7.8%로 나타나 계속해서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얼어붙은 취업시장은 탈북민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 하나재단의 2019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중 13.2%가 임시직, 15.8%가 일용 근로자인 만큼 냉각된 취업시장의 분위기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sup>1</sup> 또한 탈북민들이 가장 많

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20.6%), 숙박 및 음식점업 (15.4%) 등이 이번 코로나19에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인 만큼 이로 인한 악영향 우려도 크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돌봄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이를 위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 학생들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공백과 남북교육체제의 차이, 그리고 교육 관련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김지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탈북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환경에 더 큰 격차를 경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현장의 상황을 전했다.<sup>2</sup> 단순히 온라인으로 학습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넘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에 혼자 있다면 인스턴트 식단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영양 불균형 및 끼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탈북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케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때로는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기존에 하던 파트타임 직장을 어쩔수 없이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생계에 위협과 불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 청소년 교육 문제가 단순 교육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탈북민 가정의 전반에 걸친 어려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남한의 일반적 가정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부모 본인들도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탈북민 가정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북한 내지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이 남한에 가족이 탈북한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 내부에서 탈북민을 규탄하는 군중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송금이나 연락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sup>3</sup> 본인의安危뿐 아니라 북에 남아있는 가족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는,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게 만드는 소식이다. 이러한 가중되는 어려움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기존에도 안정적이지 못했던 탈북민의 생활과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탈북민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교육 단절, 신앙적 케어 중단,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은 결국 탈북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안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제3국에서 숨어지낸 아픈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에게 코로나19는 다시금 사회적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좁은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 성인들도 생활의 곤란과 염려를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단순히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애로를 함께 나누고 공감과 위로를 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0). 2019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동 재단, pp 48-50.

2 김지나, “코로나 19가 드러낸 교육 격차, 탈북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뉴스레터 2020 (30), pp 4-5.

3 연합뉴스, “북한, 탈북민 가족 감시 강화…남한정착 탈북민 송금·통화 끊겨”, 2020.06.28.(<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173500504>)



〈지난 6월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군중집회의 한 장면. 탈북자에 대한 강한 어조의 규탄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탈북민 사역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지만 목회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촉발한 목회 현장의 제약이 큰 애로사항이다. 교회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예배와 모임이 중단된 상황에서 만남 없이 탈북민의 삶을 케어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탈북민 부서를 운영하던 교회들도 대예배 위주로 제한적인 모임을 가지는 상황에서 탈북민 대상 활동에 열정적으로 나서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탈북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들도 코로나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역환경에서 애써오던 상황이었던 만큼 교회에 상황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사역의 존립을 위협받

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탈북민 사역과 관련한 장단기적 대안이 동시에 요구된다. 기독교사역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탈북민 교회 및 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목회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한 CT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실대 하충엽 교수는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프로젝트처럼 한국 교회 차원에서 탈북민 교회에 대한 긴급 지원 시스템 마련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이빌립 목사는 뉴노멀에 대비한 셀처치, 즉 각 지역과 가정으로 셀을 이루어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는 방안 개발과 관련한 평신도 리더 양성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했다.<sup>4</sup>

4 CTV, “포스트코로나 기획? 탈북민 선교 전략은?”, 2020. 09. 10. <<https://www.cts.tv/news/view?ncate=all&d-pid=268274>>

##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길

앞서 살펴본 내용을 볼 때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의 장, 단기적 대책과 관심, 기도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물론 최근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애쓰라는 요구는 어찌보면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담으로, 어깨의 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시대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롭게 넓어질 지경을 기대하며 탈북민들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교회의 외연을 위축시키고 선교의 문을 상당 부분 좁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주저앉았다면 코로나19는 위기로만 남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또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상황에서는 교회에 요구되는 변화를 간단하게 짚어보자. 먼저 일대일 또는 작은 단위의 소그룹을 통한 사역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대규모가 아닌 일대일 또는 소수가 모이는 상황만 가능하거나 선호되게 될 것이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가운데 제한된 대면접촉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강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만나기란 대부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성숙한 평신도들이 다른 평신도를 돌보고 신앙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은 교회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교회의 공간적, 물리적 제한을 초월한 사역이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성도들이 소수 정예로 움직이며 선교적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 사역은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를 해나가는 가장 좋은 대상이다. 최근 국가 간의 교류가 제한되고 덩달아 선교의 문도 제한되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탈북민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자 동포로서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 기존 교회 입장에서는 탈북민 사역이 생소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탈북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면 탈북민 교회 및 사역자와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탈북민 교회와 자매 결연 등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탈북민 성도들과의 만남을 열어본다면 함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우열을 가지거나, 또는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동등한 형제 자매로서 교재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다. 형제자매된 탈북민 성도가 가정과 연결되어 종종 만나서 함께 식사나 음료를 나누며 삶의 애환을 나누고 교재하고, 그 가운데 친구로서 서로 신앙적, 사



회적 도움을 나누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면 모두에게 큰 보람과 유익이 있을 것이다. 대형 집회나 모임은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개인 또는 가정간의 교류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이 시발점이 되어 다른 불신자 탈북민 가정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아직까지는 구상과 고민의 영역이다. 당장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선 교회 입장에서는 현실감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다만 꼭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기존의 교회 사역이 어떤 공간이나 모임을 키우는 것에 몰두했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흩어진 성도들의 성장과 확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더 많은 회중을 모으기 위한 교회 건축,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및 에너지가 과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점이 고민과 비판의 이슈가 되어왔는데, 이제는 건물의 중요도 자체가 약화되는 시대적 흐름까지 더해지고 있다. 교회들도 온라인 모임을 진행해보면서 이러한 방식이 한계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강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 그 속에서 탈북민들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감히 의견을 개재해 본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통일의 마중물,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을 통해 남과 북의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통일을 자연스레 품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셨

지만 그 동안 교회가 미진하게 반응했던, 귀한 영혼들이며 새로운 선교지로서 탈북민을 통해 교회가 통일을 이뤄가고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며 기도한다.

# 코로나19 이후, 탈북민 사역의 방향성

강디모데 (한소망교회 담임,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 1. 들어가며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사회적 거리’는 대인 간의 거리를 넘어 사회적 단절을 만들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몰아갔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 소식은 현대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마스크를 쓰고서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탈북민 사역도 예외일 수 없었다. 많은 사역이 중단되거나, 약화되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는 좀처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기도가 오늘날 탈북민 사역자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sup>1</sup>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sup>2</sup>라는 말씀과 상충하면서 그에 따른 선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역자들이 많다. 필자도 선교단체와 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언택트에 다른 사역 축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 포럼과 자료들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집필 제안을 받고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기고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탈북민 사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필자의 사역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탈북민 사역의 방향을 고민해 봄으로써, 코로나 시대 탈북민 사역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 사역의 현황과 제언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해 선교사 훈련, 선교사 파송, 선교비 지원, 탈북 구출, 탈

1 Untact: ‘사람과의 접촉을 지양한다’라는 의미

2 마 28:19a

북민 교회 후원 등의 사역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내 선교사와 중국 내 선교사, 제3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왕래는 어려울 것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는 사역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확보한 온,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교적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 중국 내 탈북민 사역

중국 내 탈북민은 최소 1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중국 사람들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을 도왔다. 이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선교적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아픔과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으며 중국 내에 머물러 있는 탈북민 리더들을 선별하여 집중 훈련을 통해 그들을 사역자들로 세워야 한다. 국내에 있는 탈북민 사역자들과 연대하여 이 사역에 협력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역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탈북 2세(제3국 출생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탈북 2세는 한국에만 3천 명 가까이 있고 중국에는 10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도 선교회를 통해 10년 가까이 탈북 2세들을 구제와 일대일 제자 양육으로 돕고 있다. 복음이 들어가 변화되어 북한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한 청년의 고백을 통해 깨달은 것은 탈북민들이 제2의 요셉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제2의 모세와도 같다는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았다. 마찬가지로 탈북 2세들도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 여성인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과 북한을 품고 갈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탈북 2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제2의 모세와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들은 이 땅과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에 귀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탈북 2세들을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조선족 사역자들이다. 조선족 사역자들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교적 지원으로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엔케이피플선교회를 통해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중국 내 탈북민을 도왔다. 한 명은 탈북민 선교사이고, 두 명은 한국 선교사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인권유린 당하는 탈북민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출했다. 연

길과 심양 등의 지역에 쉼터를 두고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한국으로 구출했다. 그렇게 10년간 신들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여, 선교사님들은 가정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며 지내는 실정이다.

중국 내지에는 북한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탈북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중국의 선교 현장이 열리면 다시 구출 사역은 재개될 것이다. 빨라도 내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국기독교의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탈북 구출 사역도 예전보다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탈북민들을 구출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제3국으로 탈북하여 지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신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복송, 강제 노동, 인신 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리더로 세우고, 국내에 있는 탈북민 사역자들과 조선족 사역자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사역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 2) 한국 내 탈북민 사역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3만 4천명을 웃돌고 있다. 다시 월북을 하거나, 제



〈지난 2007년 태국에서 한국 입국을 기다리는 탈북자들 (사진: 로이터)〉

3국으로 빠져 나간 탈북민의 수를 제외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는 26,000~2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탈북민들이 ‘탈남’ 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이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 있는 집단 속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방식은 탈북민들에게는 더 낮은 환경이 될 수 있다. 탈북민들이 처음 접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몸으로 체득하여 살아갈 수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탈북민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많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야기되기도 하며, 때로 탈북민들은 ‘가난한 이등 국민’, ‘잠재적 간첩’, ‘변절자’ 등으로 여겨지며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박상학 대표의 뼈라





〈9월 8일 평양에서 열린 탈북자 규탄 대학생 집회. (사진: 조선중앙통신)〉

사건을 통해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으며, 남북 간의 외교는 다시 얼어붙었다. 남한에서는 통일부에서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하였고, 탈북민들이 북한에 보내는 빠리는 돈벌이라는 인식과 탈북여성들의 미투 사건들이 뉴스에서 다뤄지면서 한국사회에 탈북민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다. 이러한 탈북민 이미지 실추는 탈북민 사역의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탈북민들이 갖는 정치적 프레임, 또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북한 인권의 방향성은 못마땅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이 한국 교회 내의 북한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탈북민은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sup>3</sup>신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다.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한 열매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탈북민들이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문 사역자로 세워져서 마지막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탈북민을 어떤 이미지로 보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탈북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의 위기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탈북민 사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을 가지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 선교 영역에서도 탈북민 사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3 창 45:7

### 3.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탈북민 사역을 도울 것인가?

첫째는 탈북민 교회와의 협력 사역이다. 탈북민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는 대략 36개 정도<sup>4</sup>이다. 자립한 교회는 1개이고 나머지 35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이다. 지금까지 탈북민 교회는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교회 임대료와 사역자 생계비를 충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 지원을 감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탈북민 교회도 그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의 차이점은 탈북민 교회의 경우, 교회의 인원 대비 현금 비율이 적고 오히려 지출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탈북민들이 현금의 개념이 약하고, 장학금이나, 구제비를 받고 교회에 첫발을 디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자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탈북민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탈북민 교회에 현금이나, 후원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구제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떠난 탈북민들을 찾

아가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는 구제 비용의 필요성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들의 경제난도 심각한데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구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고민은 더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 교회는 한국 교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교회 임대료와 사역비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원 대비 큰 건물이라면 최소한의 건물로 이전할 필요도 있고, 탈북민 장학 제도를 통한 구제 중심의 사역에서 생명과 복음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구제를 통해 탈북민을 교회로 인도했다면 앞으로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깊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헌신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탈북민 교회들이 각자도생의 방법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탈북민 교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한다면, 최소한의 보릿고개는 함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 교회에 제언한다. 첫째, 탈북민 교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 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축 현금의 일부를 탈북민 교회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교단이나 노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돕는 형태로도 지원할

4 열방생교회, 새터교회, 창조교회, 서평교회, 하나로교회, 하나비전교회, 순복음꿈의교회, 한민족사랑교회, 기쁨나눔순복음교회, 새희망나루교회, 본향교회, 한백선교회, 하나목양교회, 길동무교회, 대성교회, 평양산정현교회, 새생명교회, 그날교회, 거룩한길교회, 복음문화교회, 인천한나라은혜교회, 노원한나라은혜교회, 아름다운꿈의교회, 다민족공동체교회, 은혜세대교회, 하나은혜교회, 한소망교회, 북부중앙교회, 생명나래교회, 예수새민교회, 주는평화교회, 나뭇가지교회, 동행하는교회, 옥토밭교회, 안산하나교회, 백운마을교회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 목회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탈북민 교회를 돕고, 더 나아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탈북민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함께 훈련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 사역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또는 중국 현장에서 선교사들 중심으로 만나서 도왔던 탈북민들을 찾아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들을 탈북민 교회 또는 한국 교회 내 탈북민공동체에 연결시켜 신앙적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고, 국내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랑방 또는 목장과 연결을 통한 중보와 동역을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민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탈북민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교육을 돕고, 신앙을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시대의 중요한 영적 리더로서 다음 세대를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안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전문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이론과 기술을 전수하고, 사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들과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개개인에 맞출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탈북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육에 집중한다면, 통일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 4. 코로나19 이후, 탈북민 사역을 위한 방향성

첫째, 본질의 회복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sup>5</sup>. 남왕국 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다. 성경에서 재난이 닥칠 때면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영적 각성이 필요함을 깨우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종말을 예고하는 수많은 재난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sup>6</sup>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둘째, 사람을 준비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의 집회 중심이었



다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일대일 제자 양육이 중요하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회와 세상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한다. 탈북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신앙과 전문성으로 준비되고,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 2세들을 통일세대<sup>7</sup>로 준비시켜야 한다. 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영적 멘토와 학교, 한국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가정 사역이 중요하다. 탈북민 가정은 탈북민들에게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가정상이 흔치 않다. 이 말은 가정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1994년 이후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량 탈북이 일어났다. 대량 탈북은 가정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고, 20년 가까이 가족의 생

사를 모르는 탈북민들이 많다.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에 대한 향수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으며,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의 고백은 교회 밥이 가정 밥 같아서 좋았고, 교회 식구들이 가족 같아서 좋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 같이 따뜻한 교회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공동체를 희망한다고 했다. 탈북민 교회는 상대방에게 허물을 보이기 싫은 탈북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설령 허물을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리더 양육을 통해 리더들을 세우고 사랑방, 또는 목장 형태로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언택트 시대가 되더라도 가정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sup>8</sup> 해야 한다.

넷째,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 탈북민 사역도 All-Lin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All-Line은 On-line과 Off-Line의 합성어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대면 소통과 비대면 소통을 병행하는 것이 더 자유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 홈쇼핑처럼 특별한 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녁에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 새벽에 배송이 되고, 온라인

5 요엘 2:12-13.

6 롬 8:37

7 필자는 통일시대의 다음세대를 줄여서 통일세대라고 부른다.

8 히 10:24-25





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는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필자는 2020년 3월부터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온라인 수련회 기획과 소그룹 나눔, 미팅을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역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역과, 외부 강의와, 수업과 미팅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시대의 편의성은 급속하게 바뀌어 갈 것이다. 온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 예배, 온라인 취업 등 오프라인 공간적 개념보다는 사이버 공간의 개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일반적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개념이 확대될 것이다. 온라인 홈쇼핑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동의 시간을 줄이는 가상의

시대가 앞당겨진만큼, 택배와 음식 배달 업체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발빠르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환경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만남을 유연하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은 인격적 만남을 통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온라인에 100% 의존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퍼센트를 나누어 지혜롭게 병행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사역에 있어 진정성을 통해 타인의 공감을 얻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물리적 거리를 두지만, 목회자 간의 일대일, 교인들간의 일대일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나 은혜의 미디어(찬양, 설교, 간증)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한 영적 말씀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금요일 저녁에 ‘금요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마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함께 성경을 읽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줌으로 참여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옆에 있는 것처럼 익숙하

다. 주일예배도 줌이 아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교회는 오프라인만 고집하기 보다는 온라인 사역을 활용함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맞춰가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온라인이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채널이다.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땅끝까지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로마 시대에 먼저 도로를 깔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였듯이, 앞으로의 시대는 인터넷을 깔고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sup>9</sup>. 길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온라인 미디어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탈북민 목회자들도 미디어 선교의 영역에서 미디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탈북민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 성장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아 온 측면이 있

으며, 세상과 종교의 이원론적 분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의 탈북민 교회는 개교회 중심과 성장주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상과 종교의 이원화를 통해 분열을 야기하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다.<sup>10</sup> 따라서 교회 또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영역은 교회를 넘어 가정, 학교, 사회, 지역과 나라(남한과 북한)와 세계까지를 포함한다. 즉 복음을 통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 교회 내에 있는 남북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여야 하고, 제자가 된 이들을 교회, 가정, 학교, 사회와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탈북민 목회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진리 안에서의 변화, 제자화를 이루는 사역에 교회 전체가 집중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북한에서부터 부르셔서 자

9 고전 1:20b

10 요 3:16

# 코로나1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방역

오 은 경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워싱턴북한선교회 해외연구원)

## 1. 들어가며

‘코로나19 시대’ 안녕한가요? 코로나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재택근무, 대면 접촉 거부 등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뒤 흔들어졌다. 코로나 사태는 일반인들에게도 전례 없는 재앙이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그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인 실직, 해고 등 현실적 문제와 마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단절로 인한 소외, 정보 격차,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재난 시대에 코로나 19가 개인에게 미치는 정신 건강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와 대처방향은 무엇인지 다뤄보고자 한다.

## 2. 코로나 19와 정신 건강 문제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일로 신체·생명·재산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위협적인 사건들을 말하며 자연재해, 화재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전염병의 확산 등이 그 예이다. 감염병 재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과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긴장, 두려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에 노출되어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어 극심한 손실과 자살위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되지 않도록 멘탈데믹(mentaldemin)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의 재확산,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감염병 관련 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자살 위기 계층의 증가 등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 심리방역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셨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탈북민들을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러 주셨다. 코로나19가 빚어낸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목회자들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sup>11</sup>. 탈북민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어 한반도를 복음화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는 협력을 통한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탈북민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지집에서, 북한과 중국 현장에서 만났던 탈북민들을 돌아보며, 국내에서의 양육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지원한다면, 이들은 다가올 통일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사역과 탈북민 사역의 환경은 여러가지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의 연대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집회 중심의 사역에서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으로 전환하여 탈북 청년과 탈북 청소년을 통일 세대로 세

워가야 한다. 또한 탈북민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로서 탈북민들에게 지속적인 권면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며, 대면 소통과 비대면 소통을 병행하는 All-Line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혜롭게 사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변화하는 세상에 변함없는 복음을!’<sup>12</sup>이라는 슬로건처럼, 바뀌어 가는 상황 속에서 사역의 방법론도 바뀔 필요가 있다. 변함없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되 뉴 노멀, 뉴 처치, 뉴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정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지금보다는 더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때 교회는 개인의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도생’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sup>12</sup> 레슬리 뉴비긴, 폴 웨스턴(편집)지음,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아바서원, 2016.





〈코로나19 극복 심리방역 대책법 (출처: 국민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에 따른 상담 건수는 48만 9000건으로 누적집계 되었으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상담 건수도 전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코로나19의 진정과 확산이 반복되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감염병에 대한 공포, 극도의 절망감과 불안 등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져 상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실에 의뢰된 코로나 관련 상담호소문제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우울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는 일종의 ‘코로나 블루’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누적된 스트레스들로 인해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과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 마스크와 관련한 잇단 시비 등 분노감을 표현하는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 문제도 잇따르고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온라인 개학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양육 스트레스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지나친 게임사용과 유튜브 시청으

로 갈등을 겪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는 재택근무 및 외출자제로 서로 부딪치는 상황이 증가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경제적 갈등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외부활동에만 의존하던 가족들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잠재된 문제들이 표면화되어 가족 내 갈등을 발생시키는 등 역기능적 가족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학회(이하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에서는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심리전문가를 긴급 투입하여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온라인을 통해 랜선 박람회 및 체험, 문화생활, 교육프로그램 등 수요에 맞춘 커리큘럼들을 계획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사회관계 유지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에 힘

쓰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마련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3. 코로나 19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문제 -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떠한가?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 가장 위기를 경험하는 대상은 아마도 사회적 약자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second class citizen)란

연령, 노동, 빈곤, 장애, 다문화 대상자들로 주어진 사회적 여건들에 의해 차별 혹은 소외되기 쉬운 대상자들을 말한다. 그 중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코로나19의 여파는 더욱 심각한데 그들이 겪는 심리사회·환경적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분기 135명, 2분기 12명으로 지난해 2분기 입국자 수인 320명과 비교했을 때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sup>2</su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로 이동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및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며 코로나 사태로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들은 탈북을 선택한 순간 남한으로 오기까지 짧게는 12개월 이하, 길



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체류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는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폭력, 성매매 등에 노출되며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겪게 된다. 더욱이 인간에 의해 발생한 외상 사건들은 더 심각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만성적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여 남한정착을 방해하고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3</sup>

현재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중국에서 신분 없이 숨어 지내며 강제 복송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돈벌이를 위해 인권유린에 노출되는 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비밀 처소에 수개월째 머물게 되

1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국가트라우마센터, 2020. 9. 18.

2 이데일리 뉴스, 2020. 7. 1

3 오은경(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과정 박사학위논문.

면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에 절망감과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경 봉쇄와 검열 강화 등의 코로나19 여파로 탈북 과정이 더 험난해졌을 뿐 아니라 체류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되며 기본적인 삶과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련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더 취약한데 사유는 ‘목숨을 담보’로 탈북을 선택하고, 탈북 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다문화 대상자들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탈북과정에서 북송의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들에 반복 노출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외상 경험(trauma)은 시간이 지나 회복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고착되어 악몽, 재경험, 회피,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의 급변 등을 야기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상태를 자극하여 개인이 지닌 우울, 불안감과 만나 ‘코로나 블루’를 가중시키고 내제된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해 ‘심리방역’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였으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sup>4</sup> 그 중 교육 여건이 열악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며 학업공백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학습과 학력 결손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이보다 1~2년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실정이며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도 학업의 어려움으로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도 많은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과 일반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이라는 이름 하의 ‘교육 방치와 방임’의 학습권 결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은 189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능력 취약자가 전체의 8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sup>5</sup>

즉,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저임금의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져 버렸으며 현실적인 문제인 실업, 수입원 감소로 생계의 타격을 겪고 있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회단체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및 기업들의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자 기부와 협력의 손길이

줄어들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시름하는 그들의 고통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 4. 코로나 19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처방향

코로나 19는 빈부·계층·나이·성별·인종·국적 등을 초월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 재난이나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처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삶을 파고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재난 위기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기에 중상위층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의 코로나19 대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국민 사망자 대비 5.4%(3배 수준)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sup>6</sup> 정착지원 관리는 취업 및 직업분야에 초점을 맞춘 초기 5년에 한해 집중되어 있으며 정서지원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우 그들이 지닌 심리적 외상과 함께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한계 상황 속에



서 심리적으로 위축, 소외 등 정서문제가 재경험 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며 이들에 맞는 심리지원 대책과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변에 도와줄 가족, 이웃이 없는 상황에서 고립으로 인한 지루함이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교회의 재정적 지원, 성도들의 연대의 손길로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 24: 19)”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4 매일경제, 2020. 7. 31.

5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6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

최경일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생계활동까지 제약받기 시작했다. 평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도 미루게 되었고,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에 빠진 지인들을 위로하는 일도 부담스러워졌다. 추석명절에 가족들 보러 고향에 가는 일도 고민하게 되었다. 모든 일상이 멈추고 있다. 겨울철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마스크를 매일 쓰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잘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고난의 행군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취업문이 좁아지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고, 학생들은 비대면 학습으로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자주 접하는 탈북대학생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취업과 대학생활에

서 겪는 어려움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도울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작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 코로나19로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묶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내 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고통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한국에 미리 입국해서 가족을 기다리며 마음을 애태우는 탈북민도 있다. 어렵게 가족과 연락이 닿아 이제 한국에서 만날 생각에 부푼 마음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 탈북청년이 요즘 코로나로 답답한 것보다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실제로 금년 들어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분기에는 135명이고, 2분기에는 12명이 전부이다. 2분기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6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치는 대량 탈북 리스가 시작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통은 가중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안정화되어 꿈에도 그리는 대한민국에 올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길 고대한다.

##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버리다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고달프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2020년 국내 고용시장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는 2,71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만 명이나 줄어 들었으며, 지난 3월부터 연속 5개월간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들이 고용을 줄여 노동시장에 충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충격은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 주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고용시장 악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남북하나재단이 수행한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탈북민의 실업률은 6.3%로 남한주민(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

[그림1] 2019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경제활동



는 코로나 19상황에서는 더욱 큰 격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탈북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탈북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탈북민의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사선을 뚫고 자유의 나라 한국에 왔지만 취업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곳에서의 삶도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민의 직업유형은 단순노무직이 전체의 24.3%이며, 서비스업은 19.6%, 판매업은 9.6%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체의 53.3%에 해당되며 남한주민(35.6%)에 비해 월등이 높다. 이 3개 부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실직위험이 큰 직종으로 코로나 확산과 같은 환경이 생길 때 마다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코로나19로 취업현장이 전쟁터로 변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관련 각종 시험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토익부터 시작해서 국가공무원 시험, 기업의 직무적성검사마저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족,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취업 스펙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탈북대학생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토익은 취업 스펙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스펙에서 토익 점수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들이 일정 수준의 토익 점수를 졸업 요건으로 지정해 뒀고, 대기업 중 상당수가 토익점수를 서류 전

형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취업시장에서 토익이 이렇게 중요한데 올해 2월말부터 토익시험이 줄줄이 취소 되서 취준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탈북대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전공학습을 따라가기도 힘들어 한다. 그래서 토익은 주로 방학기간이 긴 겨울 방학 중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방학이 끝나는 2월말에 치루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이 취소되어 맨붕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익점수를 취득할 수 없어서 상반기 공채시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안정되지 않아서 취업을 준비하는 탈북대학생들의 걱정은 점점 늘어간다. 4년간 학업에 뒤통지 지 않으려고 밤을 세워 공부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취업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졸업을 앞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취업준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영어학원에 다녀서 토익 점수를 취득하고, 관련자격증에도 도전하며, NCS시험도 처음으로 공부한다. 그런데 영어학원이 문을 닫고, 학교도서관도 문을 닫고, 이제는 카페도 문을 닫아 공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하여 몇 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모두 취소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들이라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런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어떤 기업이 나에게 적합한 기업일까?’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프로세스로 채

용하는지 알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기업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항목의 자기소개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심층면접을 대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0여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전형이 통과한 곳은 1~2개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느 회사이든 기간에 취업했다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 있다. 얼마 전 대기업의 채용연계형 인턴에 합격해서 취업가능성이 높았던 학생의 취업도전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 학생은 5년 전에 만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취업로드맵을 설계하고, 5년간 꾸준히 취업을 준비해왔다, 전문교육과정도 이수하고, 대기업 두 곳에서 인턴경험도 미리 쌓았다.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서 OPIC 최상등급인 AL등급도 취득했다. 마지막 관문인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에 들어가서 한 달간 밤을 세면서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인턴 4명중 2명만 합격했는데 2명 모두 기업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기업이 신입직원을 뽑으면서도 회사에서 근

무한 경험이 있어, 바로 실전에 투입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씁쓸했다. 가장 모범적으로 취업을 준비했는데도 현실에서 취업의 벽이 너무 높았다. 이 학생은 잠시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취업전쟁터로 나갔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 하지만 곁에서 늘 해왔던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파이팅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고 있다.

### 코로나19로 탈북대학생들이 인터넷 감옥에 갇히다

코로나19는 탈북대학생들에게 비대면 학습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적응해야 하

[그림2]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탈북대학생의 어려움(항목 복수응답)





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탈북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에 다니는 탈북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대학생활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다.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국민대, 이화여대, 가천대, 을지대 등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했으며 응답한 인원은 19개 대학 51명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 강의가 전부 온라인 방식 또는 일부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가 조사 학생의 96.2%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에 보는 바와 같이 과제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토플의 어려움, 강의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것, 출석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질문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세부 의견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수님과 소통이 미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고, 집에서 공부함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의료대학의 경우는 실습을 하지 못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타자속도가 느려서 시험을 치를 때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의 어려움도 조사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마스크 비용과 통

신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코로나로 인해 교수님을 뵙지 못해 장학금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장학금에 탈락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OT, MT, 동아리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친구를 사귄 수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소한 나의 일상이 무너진 느낌이다. 스트레스 받으면 한강에 나가서 뛰거나 혼자 걸었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적 유대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서 대학포기를 고민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 5만의 교회가 탈북민 1명씩을 품는 사역을 꿈꾸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에 들어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3,670명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가족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혼자 왔거나 가족 일부만 있기 때문에 남은 주민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한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함께하는재단 탈북

민취업지원센터(대표 장형옥)에서는 취업지원, 진학지원, 청소년 꿈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탈북 청소년과 탈북 대학생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탈북청소년 110명 대상으로 온라인 학과전공·입시박람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일대일로 입시코칭을 진행했다. 면접을 모두 마치고 합격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9월 11일 기준으로 10개 대학에 17명이 이미 합격한 상태이다. 또한 탈북대학생의 취업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킬 교육을 진행 중이고, 이후 일대일 취업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도움 예정이다. 센터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곁에서 도움을 줄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다. 실제로 매년 1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돕는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연결할 때도 체계적인 매칭을 하려고 노력한다. 곁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멘토를 연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문 코치를 연결한다. 취업목표가 분명한 경우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취업 컨설턴트를 연결하고, 정서적으로 힘든 경우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한다. 이처럼 탈북민에게 가족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1명을 연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역이다. 한국에 있는 5만여 개의 교회가 탈북민 1명씩을 가족처럼 품어



준다면 탈북민이 이 땅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올해부터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을 기획하고 도전하고 있다.

탈북민을 가족처럼 품는 사역인데 “**품(POOM) 운동**”이라고 이름 지었다. 품 운동은 고아와 나그네, 과부 즉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교회가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것은 교회가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품이란 단어는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로 교회가 북한이탈주민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품는 두 개의 팔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개의 팔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팔은 「**지지와 관심의 팔**」인데 가족처럼 지지하고 관심가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 신앙의 자유를 찾아(19)

마리아

교회가 탈북민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탈북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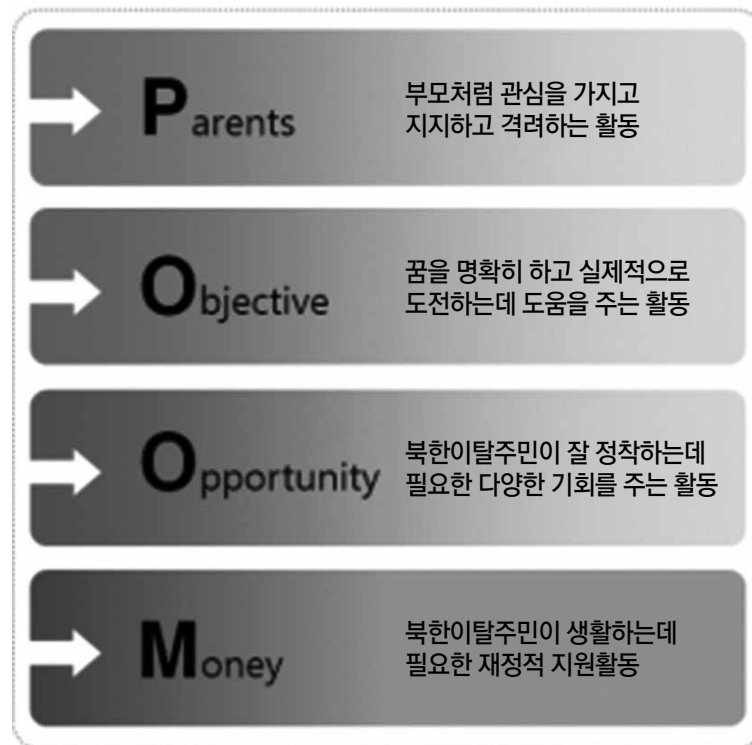
둘째 팔은 「**꿈 지원의 팔**」인데 탈북민이 꿈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곁에서 가족처럼 지지하고 관심가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지역교회가 연합사역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품(POOM)운동 대상이 될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사전에 동기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는 자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을 품는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면 된다. 품운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주요방향은 [그림-3]과 같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 연구’에 의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더라도 누군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역경을 잘 극복하고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정착하는데 애쓰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북한이탈주민을 1회성으로 돕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간의 지원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마다 제공하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진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그림 3] 품운동 세부활동 가이드



한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팀이 형성되기까지 열흘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며칠을 기다렸더니 내가 머물렀던 좁은 집에 9명이 모였다. 아무래도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이다 보니 침대가 모자라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잤다. 이 좁은 공간에 9명이 딱 차도록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으면 소음이 새 나가는 것이 걱정이었다. 같은 팀에 돌도 안 된 아기와 애엄마도 있었고 어린 남자아이도 있었다. 애기는 워낙 어려서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울었으며 남자아이는 한창 궁금한 게 많은 나이인지 말도 많고 불평도 많았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출발 전부터 과연 이 팀이 무사히 한국행을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빨리 출발하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점심 즈음 허기를 달랠 음식을 간단히 먹고 기다리는데 브로커가 와서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하라는 공지를 했다.

출발을 담당한 브로커가 우리보고 최대한 짐을 적게 가져가라고 말했고 나는 세면도구와 옷가지 몇 개만 챙겼다. 나중에 진이 빠지게 이동을 하면서 그 브로커의 말을 듣기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있던 중국의 한 마을에서 다른 국경지역 마을까지의 이동을 시작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나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2층 버스를 탔다. 출발할 때 멀미약을 단단히 챙긴 것이 나와 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2층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한 후 고속도로 중간 즈음에 내렸다. 어느새 깊은 밤이었다. 고속도로 옆 땅은 밀으로 깎여있었고 그 아래 허리까지 오는 작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담당했던 브로커가 경사면 밑 나무 사이에 숨어있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고서는 중국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안심을 시킨 뒤 떠났다. 우리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 밑에 숨어서 그 다음 차를 기다렸고, 얼마 되지 않아 9인승 승합차가 우리를 태워갔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겨울옷을 입고 출발했으나 우리가 그 다음 도착한 국경지역부터는 날씨가 아예 달라서 여름옷을 입어야 했다. 9인승 승합차에서 내리자 나무판자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캄캄한 한밤중에 우리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집에 아무렇게나 나동그라져서 누웠다. 나는 어린 아기를 챙기는 애엄마를 우리 일행 가장 앞에 세워 가자고 말했고 모두들 그렇게 하자며 동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곤히 눈을 붙였다.

“일어나라! 빨리 나오라!” 오래지 않아 별안간 브로커가 거친 중국말 사투리로 황급히 우리를





〈한밤 중에 몰래 국경을 넘는 탈북인을 묘사한 장면. (영화 '크로싱' 중)〉

깨웠다. 모두 소스라치듯이 벌떡 일어나 그 브로커 뒤를 따라갔다. 멍쳐있지 말고 5미터 정도 떨어져서 나오라는 말에 행여 앞사람을 놓칠세라 모두 하나같이 집중하면서 거리를 띄워서 걸었다. 어느새 부둣가에 다다르자 그제야 우리는 누군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애엄마와 아기였다. 가장 앞에 세워져 걷자며 좀 전에 합의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신없이 이동했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가 타고 가야할 보트가 오기 전에 애엄마가 도착했다. 말은 안 통해도 동네 현지인들이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알려주더라는 것이었다. 아기를 업고 혈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다.

부둣가 철조망 벽에 탐조등을 피해서 애엄마를 제외한 우리 일행이 이쪽에 서있었고, 애엄마는 아기를 업고 저쪽에 서 있었다. 경찰차 수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고 탐조등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이곳저곳을 비추었다. 우리를 태울 보트는 언제쯤 오는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탐조등이 갑자기 애엄마가 두르고 있던 분홍색 애기 띠를 비추었고, 애엄마가 발각될 위기에 놓였다. 애엄마는 확 옆드려 몸을 낮춘 후 데굴데굴 굴러서 우리 쪽으로 이동했고, 그러는 동안 업혀있던 아기가 엄마 무게에 눌러 깨고 말았다. 아기가 뺨 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한 손으로는 아기의 입을 꼭 틀어막고 또 한손으로는 애엄마 뒤통이를 붙들고 10미터 가량 뛰어서 어둠 속으로 다시 숨었다. 아기는 젖을 물리자 다시 조용해졌고 탐조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울음을 그쳤다.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저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 공안차가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그 때 동시에 우리를 태울 보트가 한 발 먼저 도착했고, 거의 특공대 훈련과 같이 가파른 부두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하나 둘씩 뛰어내렸다. 공안차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트 기사는 출발할 생각

을 안 하는 것 같아 저쪽으로 빨리 가자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신호를 보냈다. 5분 만에 물을 건너서 베트남 국경에 다다랐다. 도착한 곳 또한 벼랑같이 깎아 지르는 땅 위에 길이 있었다. 길 위에 오토바이 행렬이 주차되어 있었고 한 대 당 두 명씩 사람을 태우고 어디론가 분주히 달려갔다. 깊은 새벽에 어느 브로커 집에 애엄마까지 모두 도착하여 쪽잠을 잤다. 지금도 그 때 그 부둣가 상황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잡히면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로 긴장되는 그 순간들.

더욱이 우리가 베트남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 분위기는 살벌했다. 중국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시점이라 중국인 편의점이나 마트를 부수는 시위도 잦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했다. 어떤 일인지 그날 따라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무런 이동 지시도 없었고 밥도 주지 않아 우리는 지치고 배고픈 그 상황을 불안함으로 그저 견뎌야했다. 오후쯤 되니 다른 브로커가

왔고 손짓 발짓으로 배고프다는 표시를 하자 그제야 원래 있던 브로커를 야단치면서 식사를 제공해주었다. 조금 쉬었다가 숨을 돌린 후 해가 지고 어두운 저녁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면서 애엄마에게 혼자 두고 떠나 미안하다며 어느 한 명이 말문을 텃고 그것을 계기로 다 같이 사과를 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이었지마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생사를 함께하는 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출발할 때가 되었다. 베트남 출신 브로커가 와서 네 명, 다섯 명조를 가르고 마스크를 주며 각기 다른 버스에 태웠다.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와 같은 조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자주 엄마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며 땀방울을 부렸다. 보다 못한 내가 나서서 그 아이에게 우리는 여기서 병어리처럼 암전히 있어야 한다고 야단쳤다. 버스를 타던 도중에 검열이 올라왔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자는 척을 했다. 새벽에 버스가 인적 없는 마을 길가에 멈춰 섰고,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 음식점에 들어가 다른조를 기다렸다. 브로커는 뭐라도 먹여두라고 권했지만 장시간 이동에 지쳐 멀미와 두통에 시달리는 와중에 베트남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더욱이 긴장한 마음은 안심이 되지 않아 날이 밝을 때까지 뜯은 눈으로 지새웠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사진: 조선닷컴 보도캡처)〉

두 번째 조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우리 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쪽 일행에 합류했다. 우리 아홉 명은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는 라오스 국경을 향해 갔다. 꼬박 하루 정도를 이동했다. 도착할 때 즈음 되어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불상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믿는 신을 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떠올랐다.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12인승 탑승차를 탔는데 앉아서 가는 의자가 몇 개 없었다. 대부분 누워서 가야했다. 여자 브로커 한 명과 남자 브로커 한 명이 우리를 전달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키가 작고 얼굴이 새카맣다. 웬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다. 산길로 가는데 그렇게 울퉁불퉁할 수가 없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영 불편했는지 아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애엄마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저귀를 벗겨주었다. 조금 지나자 아이가

엄마 배 위에서 오줌을 싸고 차 안에서 지린내가 진동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차에서 내려서 산을 걸어 올라가야했다. 엄청 가파른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덩굴풀이 즐비했는데, 덩굴풀을 떼려고 하면 살점이 떨어져서 아팠다. 가만 보니 북한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은 그 후덥지근하고 가파른 길도 그저 잘 따라오는 것 같았으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은 험한 산길에 적응이 더디어 조금만 걸어도 얼굴이 새빨개지며 많이 힘들어했다.

몇 시간쯤 걷다보니 라오스 국경에 다다랐다. 산을 타는 내내 아기가 참 많이 울었고 첩첩산중에 아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메아리쳤다. 난처해진 애엄마는 끊임없이 아기를 달래고 젖을 물리고 후덥지근한 가운데 아기 울지 말라고 부채질도 해주었지만 아기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울음을 멈추지를 않았다. 참 다못한 한 브로커는 애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버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가파른 산도 그 누군가 먼저 개척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 국경까지 도착하였다. 모두들 산을 넘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였다. 큰 웅덩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승합차를 탔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누워서 가야했다. 새



〈前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로 우리를 맞이한 브로커는 이제 라오스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제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고 우리를 반겨주었다. 라오스 땅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었다. 그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이국땅에서 끼니 한 번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했는데 이 여정의 끝자락에 오랜만에 마주한 고향 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나는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별맛’이라며 식사하는 내내 감탄하였다.

간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모텔 같이 허름한 숙소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한 숨 자고 라오스 수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마지막 이동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지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녘에 라오스 브로커가 경찰복을 입고 우리를 버스에 태워갔다. 대여섯 시간 정도 이동을 하니 낮이 되었다. 버스 종점에서 9인승 승합차로 갈아탔는데 그 기사님은 한국 사람이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한국말로 위로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다. 몇 시간을 또 이동하여 어떤 브로커 집으로 들어갔다. 브로커는 우리 보고 이제 거의 다 왔다면 서 한국식으로 된 김치와 밥과 된장국을 내왔

다. 우리는 그곳에서 씻고 잠시 쉬었다. 우리 중에 한두 명이 대표로 바깥에 나가 여름옷과 슬리퍼를 사왔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신발을 신으니 기분이 묘했다.

우리는 저녁 즈음에 라오스 한국대사관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맡았던 브로커는 대한민국 대사관 주변에 북한 대사관이 가까이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었다. 주위를 살피고 거동을 주의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한 사람씩 내려서 걸어갔다. 이제 내 차례가 왔다. 삶의 무게가 두 발에 온전히 느껴졌다. 국경을 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지막 걸음걸음으로 라오스 대사관 도착 전까지 정말 말 그대로 심장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 눈물이 났다.

마침내 대사관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나를 맞아주는 한국인 선생들의 그 따뜻한 눈빛과 환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마치 천국에 들어서서 천사들이 나를 맞아주는 기분이었다. “아, 이제는 성공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 + IAEA “북한, 지난 1년간 우라늄 계속 농축해온 듯”



〈IAEA 본부 및 UN기구들이 위치한 비엔나 국제센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지난 1년간 우라늄을 계속 농축해온 것으로 분석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9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냉각 장치를 가동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은 북한이 원심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양 인근의 강선에서도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IAEA는 "강선의 시설은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이 세워지기 전에 건설됐다"며 "두 시설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 의무의 완전한 이행과 IAEA와의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러나 IAEA는 북한이 같은 기간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알렸다. IAEA는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2018년 12월 초부터 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IAEA는 "재처리 활동이 없었고 5MW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

토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의 경수로 시설에서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AEA의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을 포함한 가용 정보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고 이후 핵시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 (참고: 연합뉴스, 9월 3일)

## + 폼페이오 “비핵화 협상 진전에 낙관적…동맹 및 북한과도 노력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동맹은 물론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고요했지만 진행중인 많은 노력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 스스로, 그 지역 내 우리 동맹인 일본, 한국과 진행 중인 노력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심지어 북한과의 노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된다.

그동안 북미 정상간 3차례 만남과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대화 재개와 협상 진전을 위한 물밑 작업이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요구를 꾸준히 이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고, 스티브 비건 부장관도 한반도에서 지속적 평화의 길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수해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를 들어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한에 유화적 손길을 내미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경제적 도전이 있고, 코로나19 위험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9월 14일 북한의 홍수와 태풍을 언급하며 진지한 대화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미국에 얼마나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참고: 연합뉴스, 9월 16일)

## + 북한 "올여름 강수량 852mm..." 홍수피해 극심



2천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되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6만 미터의 도로가 유실되고 60여 곳의 다리가 끊긴데다, 30여 곳 3천 500여 미터 구간 철길 노반과 1천 130여 미터의 철로가 유실되면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의 위성영상 분석기구인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UNOSAT: UN Operational Satellite Application Programme)은 지난 9월 7일 현재 북한 강원도에서 2만 명 가량이 홍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UNOSAT은 촬영된 북한 강원도 8천 평방 킬로미터 구역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비록 현장검증이 필요한 초기 분석이지만 약 33평방 킬로미터 가량이 홍수 지역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2만 명 가량이 홍수 피해를 입었거나 수해 지역 가까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긴급대응조정센터(ERCC) 역시 9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홍수 피해를 전했다. 북한 강원도 통천 지역 모든 주민과 도내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중 국경지대 중국 훈춘 연변조선족자치지구에서도 1천 499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농업 분야가 악천후에 취약하기 때문에 올여름의 강한 폭풍과 홍수로 식량안보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집중호우와 태풍이 겹쳤던 올여름 강수량이 지난 25년간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월 14일 '지난 25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올여름'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수문국 종합분석에 의하면 여름철 전국평균 강수량은 852.3mm로, 연 강수량의 88%"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강수량의 217.5%이고 평년의 146.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비 피해가 특히 컸던 강원도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1천330.9mm의 비가 내렸고,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800~1천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장마전선이 여느 때 없이 강화되고 연이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례 없이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재해성 기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월 9일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함경북도 동북부 단천시 검덕지구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등에서

## + 주한미군사령관 "북, 국경 특수부대에 월경자 사살 명령"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보내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도발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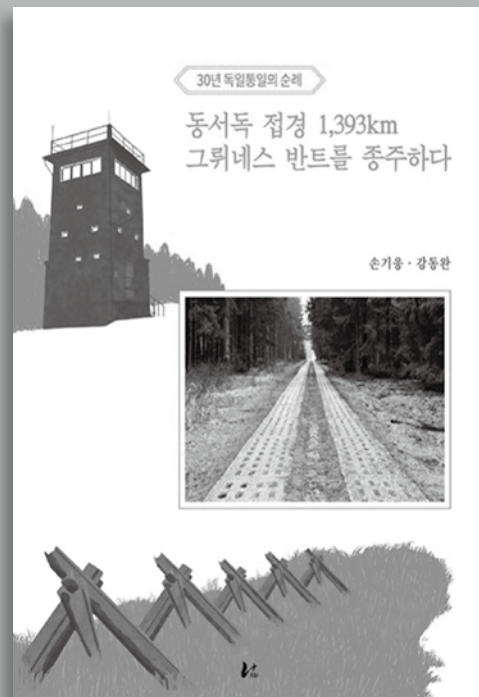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9월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 밀수업자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1~2km 떨어진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고 특수작전부대를 보냈는데 그들은 무단으로 북중 국경을 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북한에 코로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것으로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북한 주민의 60%가 영양실조이고 의료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면 그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해될 만한 것이라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북한군은 태풍피해를 복구하고 코로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남북한 군사분계선(DMZ)과 남북한 해상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 부근은 매우 조용하다고 밝혔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저자: 손기웅, 강동완

출판사: 너나드리

발행일: 2020년 7월 27일

가격: 29,000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로 잘 정리된 설명도 좋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인상과 감동을 주는 일도 없다는 뜻의 경구이다. 그리고 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대와 소망이 이야기되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접근 가능한 현장들도 사실 통일보다는 분단을 실감나게 하는 느낌이다.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까? 한반도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면 생각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독일이다.

올해는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역사적인 순간을 보도록 통해 접했던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는 그 독일 통일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리한 책이다. 그뤼네스 반트는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을 일종의 그린벨트로 보존한 것이다. 한반도에 대입하자면 비무장지대를 통일 이후에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지역을 독일은 먼저 자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분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구조물과 박물관에 대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가꾸어 놓았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역들을 북쪽에서부터 쪽 따라 내려오면서 탐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은 점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조사와 사진 자료들이다. 방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독자가 비록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곳을 둘러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사실 책 제목에 표시된 1,393km라는 긴 길이에서 보듯이 그 국경을 따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만큼 의미 있는 탐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각종 감시 초소와 구조물,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들은 과거 분단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연하고 있었다. 이렇게 곳곳에 관람 가능한 시설들을 만들어 역사의 장으로서 보존하는 태도는 우리에게도 좋은 예시가 된다. 사실 분단의 역사라는 것이 어찌보면 누군가에게는 혐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 그런지 독일에서도 지역에 따라 일부 구조물은 철거되었고 이에 대해 저자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도 참고하여 보존, 활용해야 하겠다.

통일의 모델 또는 선례로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이 논하곤 하는데 직접 그 통일의 현장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는 생각으로 펼쳐든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여러 검문소, 철조망, 구조물 등으로 표현되는 그 열망을 막아서는 반대 방향에서의 노력이었다. 기상천외한 탈출방법을 통해 여러 경로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통제를 강화하고자

계속 추가되어가는 구조물들이 대비되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인상을 자아내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동독을 비롯하여 동구권 여러 나라에 성경을 비밀리에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검문소를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극복하게 하신 많은 간증이 있다. 이러한 은혜의 기록을 생각하며 이 책을 바라보니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언제 우리는 저 휴전선의 철책을 유적지로 관람하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그렇지만 번뜩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올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다. 우리도 꼭 머지 않은 시기에 통일을 기념하는 때가 오리라 기대하며 기도한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새롭게 통일에 대한 소망을 되새김질해본다. 비록 상당한 두께의 책이지만 많은 사진 자료와 담담한 필체, 여유 있는 편집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인 만큼 관심있는 분들께 소개해본다.

1.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대화의 물꼬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역시 미 대선을 주시하는 듯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미리 결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움직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의 수해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차단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8월 홍수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입으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주요 식량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황해남북도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여 식량생산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이 공급되도록 기도합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특히 탈북민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취업 등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북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 사회의 핍박 등 다양한 난관 속에서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에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분들을 보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한국의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가운데 있지만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4.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최근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이동통제 등의 영향이 큼니다. 조금씩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제약이 많은 가운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국가의 통제가 계속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사역 대상이 되는 북한 출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북한 여성들, 그리고 제3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최근 코로나19방역을 이유로 북한 국경이 막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와 박해의 소식들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소의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도 기독교 활동이나 성경 소지 및 배부 등으로 죄를 물

- 어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가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도 있었음을 탈북자 증언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먼저 박해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적, 의료적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강화되어가는 통제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 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 선교회의 사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앞 기도제목에 이어서 북한의 박해 중단, 기독교인 및 선교사 석방, 그리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 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002E
  7.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라디오 사역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교회들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지경을 바라보게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며, 특별히 통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적 평화통일의 소망의 비전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선교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10월 1일



월드와이드리스트  
2020

##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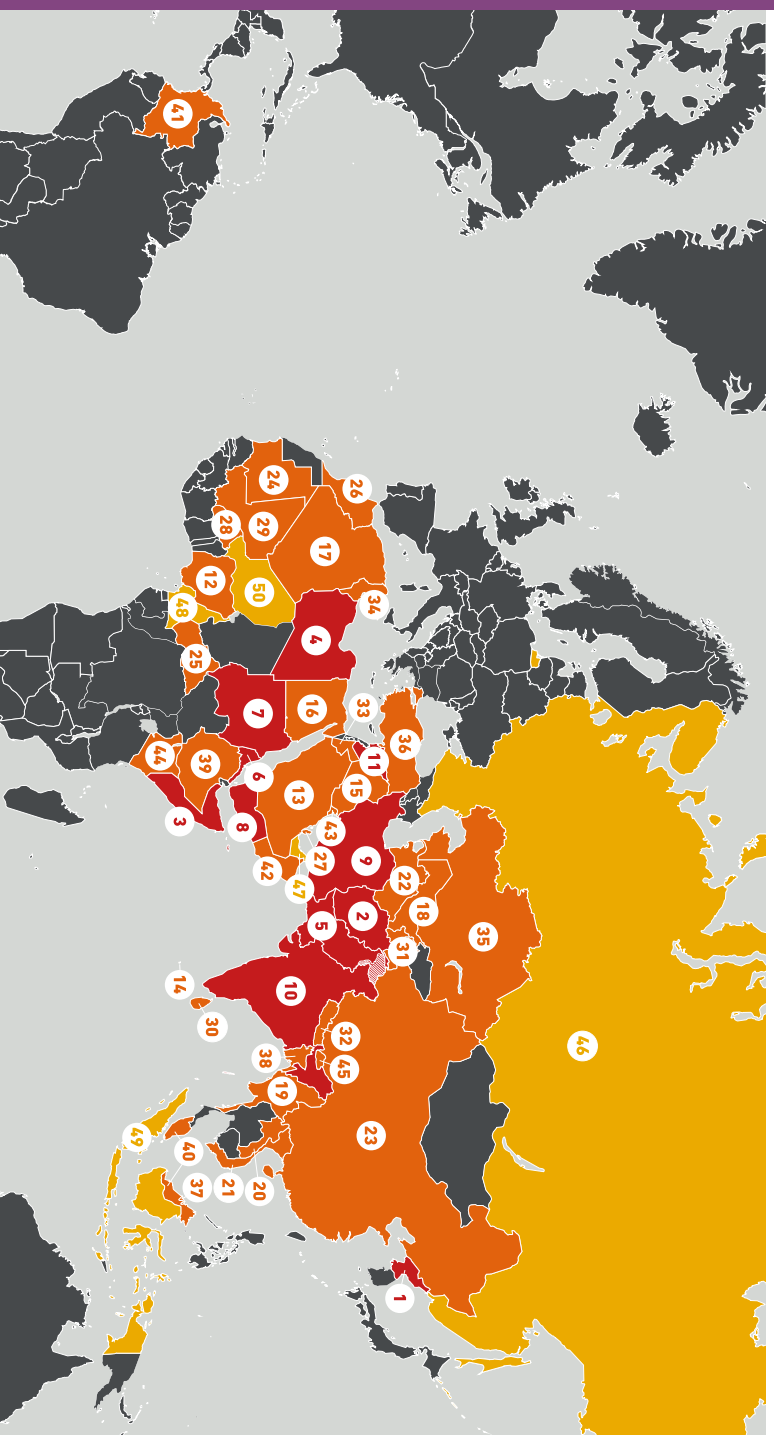
1	북한	28	모로코
2	아프가니스탄	29	카타르
3	소말리아	30	부르키나파소
4	러비아	31	말리
5	파프스탄	32	소리랑키
6	에리트레아	33	타지키스탄
7	수단	34	니بال
8	에티	35	오만
9	이란	36	튀니지
10	인도	37	카자흐스탄
11	시리아	38	터키
12	나이지리아	39	브루나이
13	사우디아라비아	40	방글라데시
14	콜라트	41	아르메니아
15	이라크	42	말레이시아
16	아랍	43	팔레스타인
17	알제리	44	요안
18	우즈베키스탄	45	쿠웨이트
19	미얀마	46	케냐
20	라오스	47	리비아
21	베트남	48	리비아
22	투르크메니스탄	49	아랍에미리트(UAE)
23	중국	50	카메룬
24	모리타니아	51	니제르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속 1

● 극단적인 수준의 배려   ● 매우 높은 수준의 배려   ● 높은 수준의 배려

오펜도어 헬덴베르거는 크리스스틴의 배려가 가장 심한 쪽에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뒤, 보고하고 또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집인 '오펜도어 보고서'에 대해 국가의 정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배려가 나타남을 증명해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정책으로는 오펜도어 기증하는 행위집수 3단계의 의제(절제)보다, 이것은 복리후생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스틴이 기증과 보고에 고려해야 할 생활 가운데 하나의 자유롭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른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검사를 받습니다. WWJ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크리스천회는 교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메시는 스티븐카바티칼로바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거실폭탄테러범이 시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티는 말합니다.

“자신이 발생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찬티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시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황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